



미국 401K 적립금 감소 예상과 영향

최 원 선임연구원

■ 베이비부머(baby boomer)¹⁾ 세대들의 은퇴 시기 도래로 미국의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인 401K²⁾의 연간 순유출입이 2016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³⁾

- 2012년 미국 근로자들이 401K에 납입한 연간 총납입액 규모는 3,000억 달러였으며, 401K에 가입한 근로자가 은퇴 시 인출한 연간 총인출액 규모는 2,760억 달러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6년 401K 연간 총납입액은 3,64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연간 총인출액은 3,6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순유출입은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연금 지급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2016년 이후에도 401K의 연간 총인출액이 총납입액을 초과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적립금 규모 확대로 과거 401K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적립금 규모 감소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401K 적립금 규모는 1990년 3,85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 1조 7,23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9년 오바마 정부가 401K에 자동가입⁴⁾되도록 제도를 변경한 이후에 급증하여 2012년 3조 6,000억 달러로 확대됨.
- 401K의 빠른 성장세로 인하여 401K가 가지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역할이 중요해짐.
- 그러나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401K 적립금 순유출입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경우

1) 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인 1946년에서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함.
 2) 미국의 대표적인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제도이며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존재함.
 3) 미국 리서치 기관인 세룰리 어소시에이츠(Cerulli Associates)가 이와 같은 전망을 제시함.
 4)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401K에 가입되도록 제도를 변경함.

그만큼 자산운용 규모가 줄어들어 주식시장과 자산운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 한편, 성공사례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호주 퇴직연금의 경우 모두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주식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401K 자산의 주식시장 유입이 꼽히고 있으며,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사적연금과 관련한 자산의 유입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호주 퇴직연금 제도는 강제가입 시행과 세제혜택 부여로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퇴직연금 펀드를 중심으로 한 호주 자산운용 산업의 경우 2012년 순자산 기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호주 퇴직연금 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호주 명목GDP의 약 125% 수준이며,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154%에 달함.⁵⁾

■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05년 말에는 163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말에는 89조 3,000억 원을 나타내고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자산이 운용되고 있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운영기간이 선진국에 비하여 길지 않아 상당기간 동안 퇴직연금 인출액 증가로 인한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은퇴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FT, 매일경제, 금감원 등)

5) 남재우(2013. 4. 2), '자산운용산업의 도약에 호주 퇴직연금이 주는 시사점', 「자본시장Weekly」, 자본시장연구원 인용.